

即身成佛의 大道 - 密教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 남의 허물 질책 말고
내 허물을 다시보자

- 종조법설집 -

제 3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중호
편집인 이종석
인쇄인 김규석

대표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주요 기사

- 1면 · 제10대 통리원장 취임
- 2면 · 법장원장·교육원장 취임
- 3면 · 청소년 봉사활동
- 4면 · 선연과 악연
- 5면 · 참불자의 길
 - 지상설법
- 6면 · 신행일기
- 7면 · 실지사 탐방
- 8면 · 이رن불자

상반기 49일 불공안내

기간 : 2. 20(화)~4.8(월)

서원사항

- 총지종교세발전
- 부국강병국태민안
- 조국평화통일
- 일체교도가정 제재난
- 일체교도가정 소구역의
- 일체교도 오세대 제도
- 사문정밀 국운융창
- 전당건설 불사 원만

제 10대 통리원장 취임 法空 大正師

실무와 수행을 겸비한 젊은 사자(獅子) 관현악의 화음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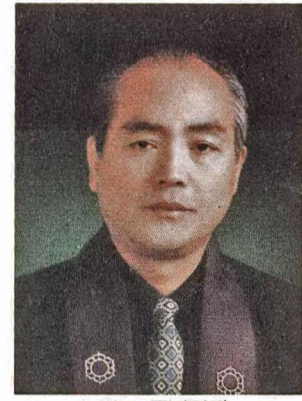


△취임사를 하고 있는 법공 신입 통리원장.

9대 통리원장인 효강 대정사(曺岡 大正師, 71세)의 임기가 지난 2월10일로 만료됨에 따라 2월14일 개최된 종의회에서 후임 통리원장의 선출이 이루어졌다.

특정 종령(蔣靜 宗領)의 추천과 종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법공 대정사(法空 大正師, 54세)가 제10대 통리원장에 임명되므로 기존에 추진해오던 종단의 제반 업무가 공백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법공 대정사는 총기 12년에 승직 입문과 동시에 법사로 임명된 이래 재무부장·총무부장·통리원장 직무대행 등 종단의 행정적인 요직을 두루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만보사·정각사등의 주교를 역임했으며 현재에도 본산인 총지사의 주교로서 교화 일선에 앞장서고 있는 실무와 수행을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공대정사는 종단내의 비교적 소장층에 속하는

법공 통리원장 약력



△ 법공 통리원장.

*본명: 李 廣源
*불기2486년(1942년) 경북 영일군 흥해 출생
*총기12년(1983년) 총지종

입문, 법사로 임명
*총기15년(1986년) 정사(正師)품수, 재무부장 및 총무부장 겸임
*총기18년(1989년) 통리원장 직무대행, 재단이사
*총기19년(1990년) 대전 만보사 주교
*총기20년(1991년) 대정사(大正師)품수·총지사 주교
*총기21년(1992년) 통리원장 직무대행
*총기22년(1993년) 정각사 주교
*총기23년(1994년) 총지사 주교 겸 재무부장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승단내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통리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근 일기 시작한 종단의 혁신 기풍에 부응하여 더욱 큰 발전을 바라는 승단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취임식은 2월15일 개최된 승단 총회에 이어 본산 2층 서원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반의 이·취임식은 구경 연후에 이어 바로 시작되는 상반기 49일 불공의 원만한 회향과 진행 중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정보다 앞당겨 내부행사로만 실시되었다.

총사에서 특정종령은 효강 전통리원장이 새로운 종풍의 건립으로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종단 발전을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한데 대하여

치하였으며 종법상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더이상 통리원장직을 담임할 수 없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신입 통리원장은 비록 연소하나 그동안의 경력으로 비추어 불매 통리원장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계기로 종단이 더욱 활기있게 발전하여 밀명의 큰 가르침이 은누리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이어서 법공 신입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전 종단이 범함없이 화합단결하여 관현악의 화음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조 원정(苑淨)대성사 탄신 봉축법회

본산및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

총지종의 창종 종조이신 원정 대성사의 제89주년 탄신 봉축법회가 지난 1월 29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 본산 총지사에 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스승과 신도 대표 2백여명 그리고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조의 탄신을 봉축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던 밀교를 증흥시킨 위업을 기리며 아울러 총지종의 발전을 서원하였다. 또 생전의 육성녹음 테이프를 통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꾸준히 닦아나가고

정의를 세우고 도의를 세워 행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고 성불(成佛)이 된다"는 종조법어를 들었다. 봉축사에서 효강 통리원장은 "대성사에서 밀교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각득(覺得)하시고 교문(敎門)을 파신 20여 성상(星霜)에 우리 총지종의 교세가 해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은 대성사에서 세우신 대비원(大悲願)의 결실이며 종조 대성사님의 음조(陰助)가 영원무궁토록 삼가 발원하고 탄신을 봉축한다"고 했다.



△종조탄신 89주년 기념법회.

종 조 설 법

정진중에 일어난 마장(魔障)은 다 법문으로서 행자(行者)의 인격을 완성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이며 몸과 마음을 시련하여 금강같이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며 난행 고행을 실행하는 좋은 기회이며 애착이 화해서 평등한 마음이 되게 하고 탐심이 화해서 단시(檀施)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진심이 화해서 화합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화해서 지혜가 밝고 인과(因果)를 아는 마음이 되게 하는 도량이니 사심구일 정진중 당체설법(當體說法)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다.

한국 불교문화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 불교텔레비전



제10대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영상포교의



새시대 선어. 불교 텔레비전”

2천8백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텔레비전이 영상포교의 새시대를 선언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깨달음의 길잡이로써
무명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고뇌와 번민의 근원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며,
은누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도록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치융화의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본 사 :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 02)3270-3300 팩스 : 3270-3498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 051)645-5114 팩스 : 631-1172

채널 '32'는 서른 두가지 수승한 모습으로 정법(正法)을 들어보이신 부처님의 32상(相)과, 서른 두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설

불교박대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우리의 얼은 불자들이 지켜야

최근 대통령의 특정 종교 편향적 행위와 민족 정기를 되살리고 국민화합을 이끄는 데 역행하는 듯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우리는 매우 염려스럽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종교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방부 중앙교회를 방문 기독교 장병들 만을 상대로 예배행사를 하면서 타종교의 종교활동을 방해했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청와대 대변인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할 것"이라는 김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다.

17사단 해병 사관,공무원 안식년 휴가제 도입 시도, 부활절 검정고시 연기 사건, 기독교 인사만의 대북 접촉 허용 등 계속되는 특정 종교 편향 정책들은 이 나라의 정신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게 한다. 경주의 고국 철도 도심통과, 사할 도근지에 대한 과세,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허용등에 대한 것도 그 근본의도가 극히 의심스럽다. 특히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 중 고등학교의 인문영역 과목으로 국사를 선택과목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자기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천대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세계화나 역사 바로 세우기니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족의 주체성을 외면하고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의 위정자나 정책이 행어나 서구에서 이미 그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를 두둔한다면 우리의 정신적 뿌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극히 불행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이러한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이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확고한 역사적의식에서 행동해 왔다면 이승 의도들이 어찌 감히 이땅에 발을 붙이겠는가? 불교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리고 역사의 원동력으로서 나라가 위태로울때는 언제나 소생의 지력이 되어 왔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얼을 간직하고 키우나가야 할 주체는 바로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불교가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 문화가 외래 사조에 내팽개쳐지려는 이때에 우리 불자들의 각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자기의 얼을 남에게 맡긴 채 살아가는 무리들에게 우리 불자들 미쳐 무너진다면 우리 것은 누가 지킬 것인가? 이천만 불자여 눈을 뜨라 그리고 직시하라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나라를 지켜왔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를.

□ 학생회원 모집 □

금번 정각사에서 학생회를 창단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학생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1. 자 격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부산경남의 학생
2. 접수처 : 514-2770, 552-7902
3. 담당자 : 유 법 인
4. 회합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1996년 3월 5일

정각사 주교 정 정 심

효강대정사 법장원장 및 중앙교육원장에



2월 15일 통리원장 이취임식에 이어 법장원장 및 중앙교육원장 취임식이 있었다. 효강 전 통리원장이 법장원장 및 중앙교육원장을 겸하게 되었는데 향후 중산 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할 법장원 및 중앙교육원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적임자로서 효강 대정사가 임명되었다. 효강 대정사는 평소 중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교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장원과 중앙교육원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는데 이번에 이 두 기관의 수장을 겸임함으로써 중산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효강 신임원장에 의하면 법장원이 명실상부한 중산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교리의 연구와 법제의 완비에 박차를 가하며 중앙교육원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부대중의 불교적 소양을 제고하고 연내에는 교양대학 설립 및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 한다.

정각사 학생회 창립법회

〈청소년교화연합회〉에 가입기로

3월 3일 부산 정각사에서 기존의 자성학교에 이어 학생회(중·고등부)의 창립법회를 가졌다. 95년 11월부터 학생회 교재 발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온 학생회 창립은 금년 1월 14일 정각사 주교 정정심 전수의 결재를 얻어 회원모집을 공고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정정심 전수는 대학입시에 자원봉사활동 실적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창립 후 빠른 시일내에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에 산하 단체로 가입하여 학생회 실행자체가 회원들의 봉사실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생회 창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년회와 각자님의 실행단체를 창립하여 연령별·계층별로 점점 다양화 되

고 있는 신도의 특성에 맞추어 포교를 차별화 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삼밀사 전당건설 교회관대로 난관에

지난 1월 15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 1동 총지중의 「삼밀사」신축 공사장에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앞 사찰 건립 반대」라는 내용의 피켓 20여개를 든 영도성결교회 신도 1백여명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5시간 동안 공사장비들을 에워싸고 집단 항의농성을 벌이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도를 열었다. 교회신도들은 자신의 교회 앞에 사찰이 건립 될 경우 종교간의 분장의 소지가 있으며, 무상 승배를 금지하는 실행명에 어긋남을 들어 자신들의 종교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강경한 자세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삼밀사」는 지난 93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로 현행법상 건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근 영도성결교회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 동안 총지중은 「삼밀사」의 건립을 위해 93년부터 교회관계자, 영도구청 실무자, 구의회 의원, 동자문 의원 등과 5차례 이상의 민원조정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교회관계자의 거센 반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총지중의 손실도 컸다. 지난해 1천3백여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여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총지중은 내년 1월경에 완공하기로 잡고,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놓고 있으나 교회측의 비협조로 중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를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불교 인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5년에 고등학교 입학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종교분포를 보았을 때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며, 현재 불교인구가 얼마나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본 중산에서는 청소년 불자 양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각 사원에서 학생회 조직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조계종도 올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 창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의 불교청소년을 위한 대형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종립 동해중학교 및 한마음유치원 졸업식

본 중의 종립학교 부산 동해중학교와 서울 한마음유치원의 졸업식이 지난 2월16일과 15일 각각 있었다. 동해중학교(교장 김병준)는 이날 오전 11시 학교 도서실 및 각급 교실에서 4백14명의 졸업생과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외부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수석졸업은 3학년7반의 주

진오 군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15일 오후 2시 본산 3층 총지회관에서 한마음유치원(원장 서정희)의 제12회 졸업식이 원생 및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루어졌다. 이날 졸업한 유치원생은 초록반(민6~7세)30명, 분홍반(민4~5세)28명, 노랑반(민3~4세)20명 등 총 78명이다.

학교법인 대동학원 정기이사회
법정부담금 늘리기로

본중 종립 대동학원의 정기이사회(이사장 최봉해)가 지난 2월13일 오후 2시 동 학교 교정실에서 12회 재적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96학년도 법인 및 학교 예산을 의결했다. 기타건으로, 후임감사의 선임과 96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추천을 종단 총회의에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종단에서 지원되는 운영측조공사금을 회계상 학교법인을 거쳐 학교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학교장이 요청함에 따라 이회 중단에 정식

으로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학교 법인의 학교전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실적이 많을수록 학교지에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실적이 적어 교육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뿐 아니라 차후 구청의 학교지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이다. 95학년도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이 3천7백만원이었으나 실제 부담 금액은 7백5십만원이었다.

종단협 정기총회
예산 및 주요사업의 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회 및 이사회가 지난 2월2일 동명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장 송월주 스님을 비롯하여 본중 효강 통리원장 등 25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예산 8억6천만원을 의결하고 공명선거제도운동, 남북불교공동법회, 한중일 3국 불교대회, 국제난민돕기모금운동 등 96년도 역점사업을 확정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동명의회의와 서울시 공동주최로 서울시민을 위한 안정기원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대표자와 조순 서

울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와 각 구청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하였다. 불교텔레비전 제11차 이사회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용 스님)은 지난 2월 8일 제11차 결산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계종과 총지중을 비롯하여 각 종단의 주시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불교TV 통신대학 운영 등 주요사업을 결의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회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3월15일 오후 3시 향군회관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봉사활동 입시에 반영

불자 청소년 수용 대책 마련해야

현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개혁의 내용중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과 특별활동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에 제출됨으로써 입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올해부터 중학교 1, 2학년은 자원봉사 점수가 6점 만점을 기준으로 내신성적에 반영되게 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내신 점수와 되지는 않으나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에 제출하게 되고, 이 종합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개별적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입시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입시제도를 본뜬 것으로 무조건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특정 종교 편향의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자원봉사와 씨름활동의 입시반영 비중이 점점 높아짐으로 교내 각종씨름(종교씨름)은 특히 기독교씨름)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현재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지금의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지난 94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 반 성인의 종교분포(15세 이상 인구의 종교분포)를 보면 카톨릭과 기독교를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불교 인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향각 전수
열반1주기 추선불사

선향각 전수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2월27일 오후 2시 부산 삼밀사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불사에 본중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승단 스

승님과 신도 등 2백여명이 참석하여 열반하신 선향각 전수의 넋을 기리며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선향각 전수는 1981년 승직에 입문하여 일선 사원에서 증생교화 등 포교에만 전념하였고 열반 당시에는 삼밀사 전수에 재직 중이었다.

종교	인구수(명)	비율(%)
불교	8,260,000	24.4
기독교	6,200,000	18.2
천주교	2,000,000	5.9

통리원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부회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 부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 부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 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 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의원
- 부회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 승최전김김방이김정배정송전김이이
- 원혜은락월지흥대혜일범무담혜택법
- 주초덕해서하파호일공운진정정우덕

- 이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 이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 이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 이사 천화 불교 교정
- 이사 대한불교 미타종 종정
- 이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 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 이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 이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 이사 대한불교 진각종 홍교부장
- 이사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 이사 대한불교 미륵종 종정

- 이이윤김윤현이이권김신김윤김이김김
- 해대지법일봉청희
- 해법시자도상광우
- 우화명우오해봉수홍곡타현월원을태당

나를 다스리는 법

욕탐을 줄이고 베품을 즐기라



(진주 화불사 전수) 법지원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스스로가 짓는 것,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라.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웃는 얼굴, 부드럽고 진실된 말로 남을 대하고 모든 일은 순리에 따르라. 나의 바른 삶이 나라위한 길임을 깊이 새길 것이며 나를 아끼듯 부모를 섬겨라. 웃어른

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 잃은 일만 쌓아나기만 몸과 마음도 낙담해져서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는가? 다만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욕탐을 줄이고 베품을 즐기라. 악을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할 것이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용맹정진에 게으르지 말라.

영원히 만나지않고 늘 선연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뜻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니 그것은 왜 일까요? 부처님께서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오묘한 도리를 인연생기(因緣生起)의 법칙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흔히 인연법이라고도 하는 이법은 인연과 과(果)의 상관관계로서 크게는 온 우주로부터 작게는 곤충미물과 일체 유정 무정에 이르기까지 인연법칙에 예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삼세, 즉 과거 현재 미래세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오늘을 어제의 결과이며 오늘은 또한 내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이렇게 볼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만

나지는 선악간의 인연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속세로부터 지은 바 자신의 업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악연 만나기를 싫어하고 선연 만나기를 바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인연은 짓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은 힘써 지어야겠지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연은 지심참회를 함으로써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연법과 인과 도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 간다면 자연 악한 인연은 차츰 줄어들고 반면 선한 인연은 점차로 불어나서 마침내 밝고 좋은 미래가 돌아올 것입니다.

선연(善緣)과 악연(惡緣)

법공(통리원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던 싫던 간수 많은 인연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한때 좋은 인연들을 만나 즐거워하다가 뜻밖에 악한 인연을 만나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쩌보면 인생의 길흉화복이 모두가 이 인연 소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태어남에서 비롯하여 어떤 부모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되기도 하고 또한 자라면서 어떤 스승 어떤 벗과 인연했는가에 따

라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며 남녀간에 다 자라서는 그가 만난 배우자에 의해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며 노후에는 자식들의 효·불효에 따라 말년의 고라이 결정되기도 하구요. 이와 같이 크게는 부모형제로부터 작게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소한 인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수한 인연을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라면 악연은

총지인터뷰

법인 정사 학생불자에서 스승까지... 학생회 출신 스승 1호

"글쎄요, 기쁩니다.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앞으로 학생회 출신 후배들이 중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 수계를 받은 부산 정각사의 류용필(법명: 법인) 정사는 학생회 출신 스승 1호답게 후배들의 중단 참여를 바란다라고 아사리계를 받은 소감에서 밝혔다.

국민학교 시절, 총지종의 창종 초기인 총기 2년부터 어머님을 따라 다니던 것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보니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법인 정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성된 「정각사 학생회」의 2기 회원으로 참여함을 계기로 더욱 총지종과 인연을 깊게 맺었다고 한다. "당시 학생회의 창립 1기는 고3 학생 위주여서 잠시 활동을 하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2기 회원들이 선배역할을 하며 사실상 창단회원으로 본격적인 학생회 활동을 시작해 나가던 것이 내 스스로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같습니다."

그 후로 부산 지역 사원에 자비로 학생회를 설립하면서까지 학생회의 활동 및 이를 통한 청소년 포교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단 자체에서의



△아사리계를 받은 법인정사

지원도 없던 시절이라 뜻대로 되지 않았고, 당시 5백명 이상 되었던 학생회원들을 성인이 된 지금 중단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교리적인 부분에서 밀교와 관련해 상당한 지식과 자료를 갖고 있는 법인정사는 "환경적으로 자식사 전수념으로 계신 누님의 영향도 있었고, 또 밀교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려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서의 중단 개혁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개행정, 민주적 방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 정사는 총기 25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중단에 대한 간략한 비평과 함께 정각사에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정각사에서서는 2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신도들을 대상으로한 교리강의가 계속됩니다. 또 3월 초에 있을 학생회의 창립과 함께 교재 준비를 하

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청년회와 각지회의 발족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동해 중학교 학생회 관리도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정각사외에 부산지역에 학생회가 생길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유치원(또는 유아원)도 내년 개원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정사는 정각사의 창건 초대 주교로서 오늘의 정각사를 있게 한 정각원 전수님의 일대기 또는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서적 발간을 계획 중이고 기념탑의 건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살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발족 문제, 부산-경남 신도를 대상으로한 장의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중단 내에서 학생회 출신으로 스승의 계를 받은 분은 이번이 법인 정사가 처음이다. 이는 청소년 포교 및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며 총지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깨침과 삶이 하나되는 불교

특별기고



목정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육식의 비린 행위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이 이것을 비린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분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의 자기만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물적 생활이 만족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겸양이나 양보가 없다. 겸양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내가 이겨 전횡하게 된다. 미망처럼 무섭고 무지한 것이 없다. 우리를 주변에는 미망한 것이 뒤엎겨 표류하고 있다. 표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다. 깨침은 일체의 미망에서 환하게 되는 세계이다. 미망이 가득차 있으면 혼미가 속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깨침의 종교인 불교에도 미망의 암초나 빙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속에 무한한 미망을 품고 있다. 이 미망이 바로 생활적인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육식하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마

불교는 깨침의종교, 미망을 버리고 자기와 이웃이 하나임을 자각해야

고, 빼앗고, 상해하고, 난폭과 무례로 서 상대를 괴롭힌다. 괴롭힌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이 생활의 빙하를 만나거나 암초에 걸리면 난파되거나 침몰하여 버린다. 바다에 빙하와 암초가 없을 때 순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항해하는 평온한 바다를 회귀한다. 이것은 항해가 순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탐닉한 비행, 흉폭한 야만성을 내뿜고 그 의식을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부하하게 한다. 이것은 「비린내」는 행위이다. 음식물에서 비린내가 나면 쉬이 제거할 수 있지만 마음의 비린내는 오래도록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의 「비린내」를 말진시켜야 한다. 욕망의 억제, 미망, 부정, 허무주의, 우치 등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비린내」이다. 이 비린내를 나로부터 탈각시키고 탈진시키는 마음공부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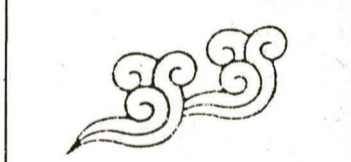
사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 깊은 관심을 쏟아 넣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대사회적 상관관계가 결여된 신앙은 개인 소득을 증장시키는 일부에 하지 않는다. 이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깨침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깨침은 중생의 삶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임을 자각하여 나가는 것이다. 미망, 무지, 탐애가 밤에 활동하는 암흑한 무명혹점이라고 하면 깨침은 밝음의 한복판에서 일체중생을 두루 비추는 한낮의 광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 불교는 깨침이 원력이 되고, 기도가 되는 신앙으로 전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불교인이 되면 깨침과 삶이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불교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한권의 책

대일경강의(권영택 편저)

대일경의 각 품에 대해 해설하고 주석서를 소개한 책으로 신림통정(神林隆淨)의(대일경·이취경 감의) 중(대일경)부분만을 번역한 것이다.

1장 해제, 2장 본론, 3장 본문으로 나누어 인용문의 원문을 편역자가 직접 찾아 삽입하여 원문과 대조해서 해설하고 있다. 대일경은 중기밀교의 세간적인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경전과는 달리,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성불의 지름길에 대해서 밝힌 경전으로 밀교의 교리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인행 제1/1만원)



제10대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불서 결정판!



통일불교성전

불교의 주요 경전을 엄선하여 교계의 권위 있는 필진이 우리말로 편찬한 법회용 최적의 불서. 초심자는 물론 원숙한 불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니고 읽어야 할 신행생활의 길잡이. 927쪽 / 9,000원

청소년 불교성전

청소년들이 불교의 진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과 문헌들을 엄선하여 우리말로 편찬.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인간형성의 길을 제시한 청소년용 법회 교재. 608쪽 / 5,000원

계간 다독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는 종합학술정보지로서 시론, 논단, 기획특집, 강좌/세미나, 교계보도자료연람,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 불교관계는저 종합색인, 교계 주요 행사 일지 등으로 구성. 2호 / 5,000원

통일불교성전 설법지침서

통일불교성전에 수록된 각 경전의 해제와 교리개관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불교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법회시 불교의 핵심을 보다 명쾌히 설법할 수 있도록 편찬. 465쪽 / 9,000원

韓國佛敎總覽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불교계 최초의 종합자료집으로 종론(역사/현황/국제), 자료(중단/법인/단체기관), 목록(인명/사찰/불교문화재/불교도서논문), 법령(불교관계법령), 연표(한국불교사연표) 등으로 구성. 1490쪽 / 85,000원



지상설법



◇경관(관성사 주교)

참괴(慙愧)를 알자

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을 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 안의 것을 상세히 알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몸밖에 있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마음의 아는 바를 몸은 알지 못하고 몸이 아는 바를 마음은 모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아는 바를 몸이 느끼고 몸이 느끼는 바를 마음은 잘 알고 있으므로 마음은 몸의 밖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몸밖의 일만을 잘 알고 몸 안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정정하고 깨끗한 본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의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미혹의 면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요새 우리 주위에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

는 사람이 "누가 감히 나를 어찌랴" 하는 생각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정지해야 할 곳에서 그대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앞장서서 법을 지킬 때 세상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각 가정에도 가정 나름의 규율이 있고 사회의 모든 단체에는 그 단체 나름대로의 법규가 있습니다. 법이란 일종의 상호간의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을 해놓고 후안무치하게 다반사로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편리한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며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생각하고 구하

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慙)은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괴(愧)는 하늘에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을 참괴라 한다. 참괴가 없는 자는 사람이랄 할 수 없고 축생이라 할 것이니 부끄러움이 있는 까닭에 사람이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청정한 본심이 참괴로서 악업을 소멸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늘 읽어 보면서 자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활한 사람도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질이 나쁜 사람도 있고,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에도 푸른색, 붉은 색, 노란 색, 흰색 등의 갖가지 색의 꽃이 있듯이 많은 류(類)의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남-여라는 가장 큰 구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에게서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갖추어져 있

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혹 독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예사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다시말해 글자 그대로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또한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법(法)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각종 법이 제정되어 있고 국민 모두는 그 법에 따라 살아야만 질서가 유지되고 안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어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

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욕을 생각하면 더욱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화를 생각하면 더욱 화내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또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더욱 많아집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위가 혹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인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열반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더라도 덮어두지 말고 감추지 말라. 덮어두지 않으면 죄가 곧 가버워지는 것이며, 만약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죄가 곧 소멸된다."

교리문답 즉신성불이란? 이몸 그대로 부처되는 것

문: 즉신성불(卽身成佛)이란 어떤 것인가? 답: 부모로부터 낳은 육신 그대로 불과(佛果)를 증득하여 불신(佛身)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밀교 특유의 용어이며 현교(顯教)에 없는 밀교교리의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현교에서는 삼아승기계를 지나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밀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생때난 부처였고 부처때난 중생이 없으며 중생과 부처는 본래 다름이 없다는 철

저한 평등관에 입각하여 번뇌를 여 의고 자각하면 그것이 즉 부처요 성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라고 생각했던 아기가 부모를 찾게 되면 그 순간부터 친아들이 되듯이 우리들이 스스로 범부다 부처다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처라 자각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근거없이 분별심으로 범부중생이라고 공연한 생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 마음과 같은

바른 마음을 지니며 부처님 말씀과 같은 진실한 말을 쓰며 부처님 하신 일과 같은 바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한문 행하면 한 문자의 성불이며 심론 행하면 심론의 성불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힘써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부처님의 삼밀(三密)에 갈게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바로 이름이 부처가 되는 것을 즉신성불이라 합니다.



올바른 수행·참불자의 길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으며 실제로는 얼마만큼 부처님 법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따로 신행따로 부처님 진리따로, 살아있지 못한 불교를 믿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자문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깊은 자각과 자기반성 없이는 즉신성불도 소원성취도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좋은 신행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실천수행의 보살도를 이루기를 소원한다. 먼저 이번호에서는 육바라밀을 통해 올바른 수행·참불자의 길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팔정도, 십선회향, 참회가, 오대서원가, 회향서원가 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해야 불교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법경/법정원 연구원)

살아있는 불교는 진정한 실천에서

즉신성불의 소원도 자기성찰이 있어야 육바라밀에 바탕한 참된 실천을

1. 진정한 보시를 하고 있는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보시이다. 물질적 보시만이 전부 아니다. 물질이 아니라도 베퉴 수 있는 보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무재시(無財施)라 한다. 남에게 좋은 말 하는것도 무재시요, 남에게 환한 얼굴하는 것도 무재시다.

2. 제대로 계율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계를 받고도 계 지키기를 게을리 하고 철저하지 못하며 자기편리한 대로 계를 적용한다. 내가 못한 것은 그럴수 있는 것이고 남이 안지키는 것은 파계한 것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계율이 있지만 결국 5가지 계율로 집약된다. 그것이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忘語), 불음주(不飲酒)의 5계이다. 과연 우리는 5계중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다 못해 불공기전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불살생이면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도 불살생이라 할 수 있다. 양심하여 이간하는 죄, 악구의 죄, 꾸며서 남을 해치는 죄, 망어로 남을 어지럽게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3. 인욕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박해를 받아 위난을 당할 때라도 견디어서 이것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상대방을 불쌍히 생각하여 자비로서 대하는 것을 뜻한다.(대승이취유바라

밀다경 권제6)(안인바라밀다품 제7)에서는 서른 두가지의 안인(安忍)을 설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천수행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몇가지만 옮기면, "탐욕없는 그것이 안인이요, 원한없음이 안인이며, 분노가 없음이 안인이요, 분별함이 없는 것이 안인이며, 언설이 자재함(이오) 남의 뜻을 잘 보호하는 것이며, 간담과 질투를 끊어버리는 것이며,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인바라밀다를 보살이 수행하면 능히 無生法忍을 얻어서, 속히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리라"하였다.

4. 우리는 어떤 정진을 하고 있는가? 정진은 바로 부지런함이다. 사정제의 도제를 이루고자함이 팔정도요, 이는 팔정도의 정정진과 같은 것이다. 정정진은 바른 정진을 말한다. 우리가 빠짐없이 하는 자성불공 율초불공 새해불공도 정진이나 막연히 염주만 돌리는 그것만이 정진은 아니다.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삶, 바른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실천이 따라야 한다. 진정한 보살로서 진정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정진하더라도 어떤 정진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5. 우리는 선정에 들고 있는가? 선(禪)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정려(靜慮)]를 뜻한다. 보살정려바라밀은 모든 번뇌 버림이나 공경함을 받들더라도 마음 내세워 하지 말며 실속 경만하더라도 비천함을 싫어 말고 이익 얻어 기뻐하며 손실함을 근심할 것이 없다. 흔들림이 없이 마음 가라앉힘이 정려이다. 우리 인생 팔도 중에 근심

걱정 한량없음이나 이를 사(捨)케 하는 것이 선정이라 마음 좋다하여 지나침이 없음이요, 괴로움이 있다하여 이의 노에되지 않음이 곧 정려이다. 매일 불공하는 우리들이 번뇌탈을 벗어 나지 못한 것은 중생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 중생심을 아는 것이 곧 정려이다.

6. 반야바라밀이 즉신성불 대도(大道)이다. 반야는 곧 지혜이다. 무엇이 지혜인고 하니 무명에서 벗어남이 그것이다. 팔정도(八正道)의 정정(正見)에서 출발한다. 모든 분별방념을 초월하여 말할 수 없이 청정한것이며, 모든 선법(善法)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며,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것이 반야바라밀인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할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놀람이 없고 거꾸로 된 생각[전도(顛倒)]를 멀리 떠나 공격적인 열반에 이르다"고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있다. 이것이 곧 즉신성불이며 의의 대도(大道)가 반야바라밀다를 이루는 것이다.(대승이취유바라밀다품 권제9)(반야바라밀다품 제10)에 이르기를, "일체의 공덕을 이루는것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있고 과실이 자라서 익을 때에는 가지가 스스로 낮아짐과 같네. 지혜를 흥룡한 길잡이 삼아 일체의 악지식 멀리 여의고 그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면 자연히 해탈을 얻을 것이다"하였다. 우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멀리에 있을 뿐이다.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지극히 적극적인 종교적 행위가 요구되어진다.

무바스님 금강경 강의. 경문과 함께 마치 설명하듯이 쉽게 깨닫고 싶다면 우리시대 대가인 무바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번역하는 禪氣와 해박한 불교지식이 어우러져 단순한 경전 강의를 뛰어넘어 우리 존재의 진실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주고 있다. ◆신국판 288원/값 5,500원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佛光. 공보처선정 제3회 우수집지. 월간 佛光은 창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선리의 빛을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권법저서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광 바라밀 총서. 불교 교리의 핵심을 쉬운 언어로 전달해주는... 1.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2. 삶의 빛을 찾아, 3. 빛의 목소리, 4. 행복의 법칙, 5. 반야심경 강의, 6. 보현행원 강의, 8. 불교교리강좌, 10. 365일 부처님과 함께, 11. 위빠싸나 1, 12. 위빠싸나 2, 13.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15. 나무식가모니불, 16. 불교우화백영경, 17. 부처님의 생애, 18. 여인성불, 19. 직장인의 신앙생활, 20. 교양불교, 21. 불자예절과 의식, 22. 이 기쁜 만남, 23. 나는 빛이요, 불빛이라, 24. 몸바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25. 무소의 뿔처럼(상), 26. 무소의 뿔처럼(하).

비구니 시인 정운 스님의 첫번째 산문집! 사람의 향기 정운 스님. 정운 스님은 충남 보령시의 작은 마을에서 세원사라는 작은 절을 짓고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동안 세 권의 시집을 내고 많은 지면을 통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마음 조각을 영롱한 시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향기'는 시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출가심, 인연담 그리고 현재의 심경들을 진솔한 필치로 고백한 수필집입니다. 평소 금강하게 생각하셨던 스님들만이 갖는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 228원/값 5,500원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학 입문서. B.뱃따짜리아 지음. 정의 옮김. ◆신국판 284원/값 6,000원

中論頌研究. 김민덕 지음. 양장/376원/값 12,000원. 138-19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대표전화 420-3200 팩스밀리 420-3400

밀교개론 밀교의 기원 ②

밀교는 언제 생겨난 것인가?

—효강 법장원장

불교는 석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석존(釋尊)께서 설하신 것을 원시불교(原始佛敎), 근본불교(根本佛敎)라고 하며 이 석존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 나가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승불교(小乘佛敎)가 성립된 것이다. 거기에서 지나치게 형식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정진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대두된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성립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인도불교의 공식적 전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 성립 이후, 석존께서 설하신

화문에도 바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석존시대에는 좋았던 불교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점 타락해 간다는 사교방식(思考方式)인 것이다. 대승불교를 보면 석존의 가르침(그 형식면)을 충실히 지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정신(精神)을 중시하게 되며 대승불교의 중국에 가서는 밀교가 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2차대전 이전의 불교사(佛敎史)를 보면 밀교는 원시불교의 향기로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바라문교 또는 힌두교를 흉내 내며 심지어는 혼까지도 그쪽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까지 생각하였던

불교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일선상(一線上)의 계열에서 불교사를 내다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게 되었다.

민중들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던 것이 밀교 20세기에 이르러 인도불교의 연구 또는 인도의 역사사(歷史思想), 인도 각처에서의 발굴 조사 그리고 문화사적 연구(文化史的研究)가 진전됨에 따라 석존의 가르침 속에는 소승불교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要素) 또는 대승불교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가 모두 내포(內包)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원시(原始) - 소승(小乘) - 대승(大乘) - 밀교(密敎), 이러한 차례로 점차 타락하여 왔다는 것이 아니고 석존께서 설하신 불교 그 자체 속에는 소승, 즉 부파불교(部派佛敎) 쪽으로, 대승불교 쪽으로, 밀교 쪽으로 전개될 요소를 모두 함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힌두교 또는 바라문교의 요소를 많이 정화(淨化)하고 있는 밀교가 본래의 불교정신(佛敎精神)을 잃어버린 타락된 형태라고 하는 종래의 견해에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힌두교, 바라문교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한 것은 오히려 밀교가 일반민중과 밀접하게 결합(結合)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교는 철학적 요소(哲學的要素)만 가지고서는 널리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신봉하는 민중들이 있어 비로소 널리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볼 때 민중과 가장 깊이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밀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신앙(民間信仰) 또는 전통적인 종교 의례를 어느 불교보다 듬뿍 수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2차 대전 이후의 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우세하게 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밀교의 연구가 근세에 와서는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밀교에 대한 서술이 인도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밀교는 석존의 깨달음에서 시작

불교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것이 불교

가르침이 그대로 잘 지켜져 내려온 5백년간을 정법시대(正法時代)라고 하고, 거기에서 5백년간을 형식만 남아 있어 상법시대(像法時代)라 한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불교가 세간에 행하여지지 않는 암흑시대, 즉 말법시대(末法時代)가 온다는 것이다. 이 기간의 단위를 5백년이라고 하고 1천년 단위로 구분하는 수도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불교의 역사이다.

정토교 신앙(淨土敎信仰)의 출현은 말법시대에 어울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역사관 최초에는 매우 좋았던 것이 점차로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져 되어 간다는 견해가

있었다. 즉 원시불교에서는 아주 좋았던 것이 점점 타락하고 밀교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타락하여 바라문교 또는 힌두교에 혼까지 팔아 넘긴, 불교답지 않은 불교로 전락(轉落)하였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이르러 그 역사관이 잘못되었음을 점차 알게 되었던 것이다. 불교는 최초로 좋았던 것이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는 기상개념(概念)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고찰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는 것이다. 원시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석존의 가르침에서 소승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승

경전소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②

【귀의삼보품(歸依三寶品)】 이 품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데 먼저 품의 첫머리에는 자비보살의 간청에 의하여 부처님이 설법하시게 되는 동기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어서 불·법·승 삼보의 내용에 대하여 설했다.

먼저 불보(佛寶)라는 것은 불신(佛身)과 불덕(佛德)을 말하는데 불신은 곧 여래이고 불덕은 곧 여래의 신비한 힘이라고 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언제나 변함이 없는 법신불에 의거하여하며 보살이 법신에 의거하여 중생들을

교화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법신불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준다면 이것이 곧 자신이 열반하는 길이 된다고 했다.

법보(法寶)에는 세가지가 있으며 이것들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뗏목과 같으며 중생이 온갖 번뇌를 떨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법보를 믿고 따르며 그것을 집잡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승보(僧寶)의 내용에 대하여 설했으며 끝으로 부처님은 자비보살에게 이와 같은 삼보의 공덕을 잘알고 모든 사람들이 삼보에 의지하여 불도를 닦아 모두가 열반을 얻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라니호지국계품(陀羅尼護持國界品)】 다라니호지국계는 나라를 보호하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이 품에서는 먼저 아난이 화유한 광명의 서상(瑞相)을 보고 부처님께 칭찬하니 여기에 대하여 박가법부처님이 불세계의 원근과 불의 명호와 일체지지를 설하고 불현(不)세계의 불기사의한 장엄상을 설한다. 이 세계는 보현여래가 머물고 있는 국토로서 인간계상과는 달리 고난과 지옥의 범죄와 번뇌가 없고 질투와 인색·탐욕과 같은 것도 없으며 온갖 차별현상도 없고

오직 불·법·승이 평등하게 융합되어 있다고 설한다. 다음으로 만수일리로 살이 다라니를 수지속송하는 공덕에 대하여 묻자 부처님은 수천만의 부처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공덕이 크다고 하지만 육바라밀의 다라니를 외우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대승의 교리가 담긴 육바라밀은 모든 부처를 낳는 어머니가 되며 온갖 부처가 의지하는 보배라고 하였다. 끝으로 박가법 부처님은 여러 보살들과 비사문천왕에게 이 경을 소중히 간직하고 수호하라고 말씀하였다.

【발보리심품(發菩提心品)】

고전속의 불교

선승(禪僧)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삼국의 역사와 신화, 전설, 민담을 모아 기록한 책이다. 그는 《삼국유사》의 저술을 위해서 청년시절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70세 후반부터 원어를 집필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보다 140년 뒤인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완성하였다. 일연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료를 해석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하는 설화를 충실하게 수록하는 한편, 불교 승단의 전승인 승전(僧傳)과 함께 민간전승인 향전(鄉傳)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향전이라고 밝힌 것 가운데는 자기가 나서서 현지조사를 한 것도 적지 않았다. 《삼국유사》는 유가적 관점에서 쓰여진 삼국사기와는

차이했는데 그에게는 육면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육면은 주인을 모시고 절에 갈 때마다 마당에 서서 염불을 따라하며 법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주인은 계집종이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못마땅히 여겨, 곡식 두 섬을 주면서 하룻밤 동안에 전부 쟁이라고 명령했다. 육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다 마치고 절에 가서 염불을 할 생각으로 열심히 고를 집필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보다 140년 뒤인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완성하였다. 일연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료를 해석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하는 설화를 충실하게 수록하는 한편, 불교 승단의 전승인 승전(僧傳)과 함께 민간전승인 향전(鄉傳)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향전이라고 밝힌 것 가운데는 자기가 나서서 현지조사를 한 것도 적지 않았다. 《삼국유사》는 유가적 관점에서 쓰여진 삼국사기와는

않았다. 귀진은 언제나 그 절에 가서 염불을 하였는데 계집종도 따라와 절에 갈 때마다 마당에 서서 염불을 따라하며 법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주인은 계집종이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못마땅히 여겨, 곡식 두 섬을 주면서 하룻밤 동안에 전부 쟁이라고 명령했다. 육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다 마치고 절에 가서 염불을 할 생각으로 열심히 고를 집필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보다 140년 뒤인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완성하였다. 일연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료를 해석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하는 설화를 충실하게 수록하는 한편, 불교 승단의 전승인 승전(僧傳)과 함께 민간전승인 향전(鄉傳)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향전이라고 밝힌 것 가운데는 자기가 나서서 현지조사를 한 것도 적지 않았다. 《삼국유사》는 유가적 관점에서 쓰여진 삼국사기와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중불교 사상

삼국유사는 우리 문화의 보고(寶庫)

육면의 설화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

달리 불교 수용에 따르는 사상적 변화의 설화적 표현을 충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불교설화와 민간전승이 만나는 자리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삼국유사》는 국가나 정치권력에 대하여 사회와 서민 생활을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불교를 통하여 양자간의 등립적인 조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유사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의 불교의 모습을 살피는데 도움이 귀중한 자료이다.

다음은 《삼국유사》중의 ‘육면비염불서승(郁面妃念佛西昇) 설화를 정리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당시 민중들의 불교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강주(康州)에 사는 불교 신자 수심 명(水心明)이 고장 변두리에 미타사(彌陀寺)라는 절을 세우고 서방정도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일(萬日) 동안 대법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법회에는 아간(阿干)이란 비승을 가진 귀진(貴珍)도

절의 스님들도 이 소리를 듣고 육면의 설화적 표현을 충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불교설화와 민간전승이 만나는 자리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삼국유사》는 국가나 정치권력에 대하여 사회와 서민 생활을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불교를 통하여 양자간의 등립적인 조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유사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의 불교의 모습을 살피는데 도움이 귀중한 자료이다.

다. 육면(郁面)은 이렇게 적혀 있다. 육면은 원래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관음보살을 따라 정성껏 도를 닦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파계하여 축생에 떨어져 부석사(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소가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함을 잃어 귀진의 계집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름을 육면이라 하였다. 육면은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열기로 했다. 이 대법회에는 아간(阿干)이란 비승을 가진 귀진(貴珍)도

다. 육면(郁面)은 이렇게 적혀 있다. 육면은 원래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관음보살을 따라 정성껏 도를 닦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파계하여 축생에 떨어져 부석사(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소가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함을 잃어 귀진의 계집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름을 육면이라 하였다. 육면은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열기로 했다. 이 대법회에는 아간(阿干)이란 비승을 가진 귀진(貴珍)도

다. 육면(郁面)은 이렇게 적혀 있다. 육면은 원래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관음보살을 따라 정성껏 도를 닦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파계하여 축생에 떨어져 부석사(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소가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함을 잃어 귀진의 계집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름을 육면이라 하였다. 육면은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열기로 했다. 이 대법회에는 아간(阿干)이란 비승을 가진 귀진(貴珍)도

이성수(통리원 사회부)

발보리심은 깨닫겠다는 마음을 낸다는 뜻인데 이 품에서는 보살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을 끝까지 지녀야 한다는 것을 설했다.

【발보리심품(發菩提心品)】

이 품에서는 보살이 불도를 닦으면서 되도록 보살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을 끝까지 지녀야 한다는 것을 설했다.

【발보리심품(發菩提心品)】

다. 육면(郁面)은 이렇게 적혀 있다. 육면은 원래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관음보살을 따라 정성껏 도를 닦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파계하여 축생에 떨어져 부석사(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소가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함을 잃어 귀진의 계집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름을 육면이라 하였다. 육면은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열기로 했다. 이 대법회에는 아간(阿干)이란 비승을 가진 귀진(貴珍)도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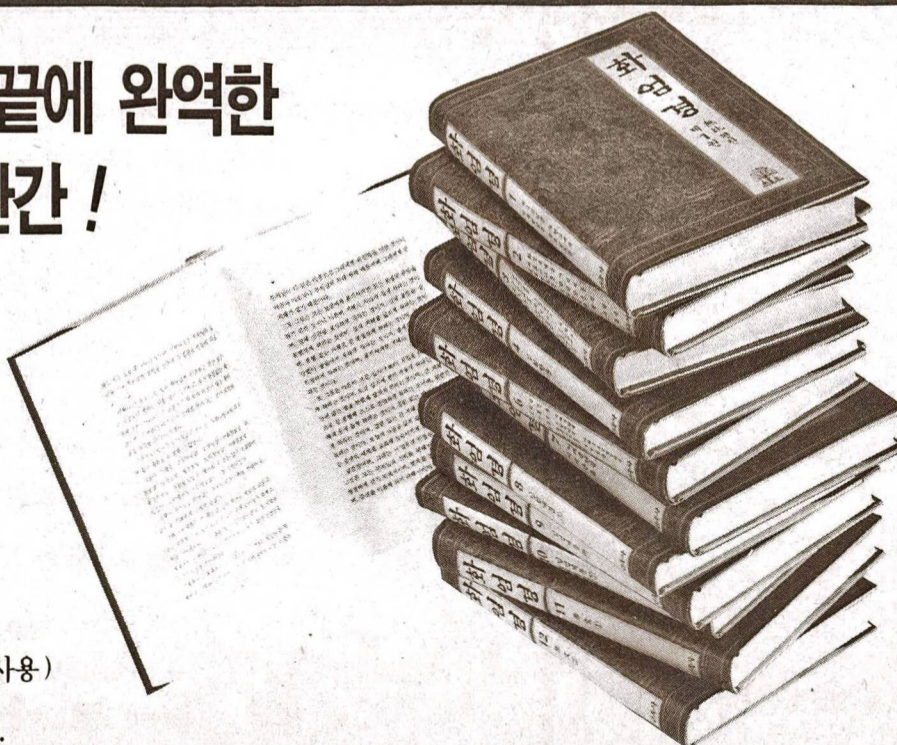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無比스님께서 10여년의 각고 끝에 완역한 한글 화엄경 전12권 마침내 완간!

5천여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현재 강원교재로 사용)
- ④ 화엄경의 어휘를 알기 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 발간.
- ⑤ 상세한 단락 구분과 소제목을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된 책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無比스님(前법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화엄경」(전12권)은 善財童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일보 —

智冠 큰스님의 격찬! (철학박사, 전 동국대 총장)



“불교의 정수인 화엄경은一心을 바탕으로 만유를 總該한 경전으로 경전중의 으뜸이므로 大經이라고 한다.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하여야 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이나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 ① 특가 : 전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 ②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소사전과 화엄경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 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나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제일은행) 130-10-080370 민족사
(농협) 032-01-088461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우체국) 010041-0097045 민족사 (국민은행) 023-01-0225-854 윤계승
(신협은행) 15504-0475103 민족사 (상업은행) 113-04-101987 윤계승

도서출판 우원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 ~ 4, 722-7679
팩스 : (02)739-7565
민족사

신행(信行)일기



박상영(부산 정라사 신도)

내가 처음 총지중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총기 11년, 그러니까 1982년 1월 29일의 일이다. 입교를 한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절친한 이웃 친구가 해준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자기 불공 자기가 한다는 즉, 무엇이든 의논해서 북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성을 성찰하고 자신의 힘으로 업장을 소멸해서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간다는 교리가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첫 발을 내딛으면서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설법과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많은 점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전에는 내 자신은 똑똑해서 모든 일에 잘못이 없고 대신 시부모님이나 남편, 형제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조금이나마 깨닫고 보니 그와는 반대로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동안 죄만 지었구나!」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래서 진실로 참회하며 서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시집온지가 10년인데 그동안 자은 죄를 앞으로 10년동안 참회하고 불공하면 조금이나마 소멸 되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공력으로 복을 받아 훌륭하게 자라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겠지.」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또 그 동안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맹정진 했다. 그러나 수행중의 마장이라고나 할까 남편이 불공하러 다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니 급기야는 심한 말까지 막 해대는 것이었다. 「절에 미쳤나. 아예 보따리 싸 가지고 절에 가서 살라!」

입교와 더불어 참회에 눈떠

용맹정진 할수록 반대는 심해지고

가끔은 인욕을 하지 못하고 같이 대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또 어리석음을 저질렀구나하는 후회로 서원당에 홀로 앉아 서럽게 울었다.

“이 어리석은 중생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하면서 더욱 참회하고 용맹정진하였다.

남편과 다룬 후에 실컷 울고 나면 내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싶어 서럽고 억울한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닦아가노라면 언젠가는 남편도 내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업장도 소멸되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이 솟으며 온 세상이 깨끗하고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공덕을 생각하며 마음을 닦아가노라니 어느덧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폭풍과 같이 격렬했던 그날들도 이제 옛날 일처럼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의 마음도 한결 성숙해짐을 느낀다. 음미반배춤 육자진언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느끼며 내가 이렇게 총지중과 인연을 맺게 되고 밀교를 알게 된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1남2녀의 아이들도 이제 모두 성장했다. 그 동안 자신으로 참회하고 불공한 공덕인지 아무튼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은혜로써 삼남매 모두 서원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게 되면 국가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중생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우리 총지중의 훌륭한 중지를 따라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써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총지중의 모든 각자님 보살님들께서도 큰 뜻과 큰 서원을 세워 끈기와 용맹으로 매일 같이 힘있는 정진하셔서 모든 서원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지금 내게 가장 큰 서원이 있다면 우리 각자님을 제도하는 것이다. 불공하러 다니는 것에 대해 이제 그런처럼 나무라지는 않지만 불법에 접하는 것을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남편까지도 참된 불자가 되어 지혜의 눈을 뜨도록 더욱 자신으로 불공하고 서원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부처님 품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생각하는 열매

"항아리 속의 그림자"

헛된 망상으로 서로를 오해하고 다투다니

어느 젊은이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젊은이가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엌에 가서 술을 좀 가져 오시오. 우리 둘이 오랜만에 여기서 잔잔합시다.”

색시는 술상을 푸짐하게 차리고는 부지런히 술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웬 미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색시는 그 미인이 술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라는 것도 모르고 벌떡 화를 내며 남편에게 뛰어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결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

를, 그것도 몰래 집안에서 숨겨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나...”

색시는 드디어 울음을 터트렸고 영문을 모르는 젊은이는 난데없이

부인이 화를 내며 울고불고하는데 놀라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자기도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항아리 속에서 늙은 한 젊은이가 노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음, 집안에 젊은 녀석을 숨겨놓고 있다가 들릴 것 같으니까 오해려 내게 뒤집어씌우려고 이런 못돼먹은 여자를 내가 부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참을 수가 없다.”

남편은 성을 나서 부인에게 큰소리를 치며 야단치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금술 좋기로 소문난 두 사람이 서로 욕하고 싸우는 소리로 동네가 시끄러져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웃의 친하게 지내는 어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두

사람을 간신히 뜯어말리고 사연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어른은 두 사람이 어쩌나 서로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우겨대서 할 수 없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엌에 가서 술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 항아리 속에는 아름다운 미인도 늙은 젊은이도 없고 다만 나이 많은 어른 한 명이 접시를 빼며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른은 생각하기를 “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젊다는 어른이 집안에 있으니 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멀리하려고 일부러 꾸며낸 부부싸움이었구나”하고 깨닫고서 말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서로 내가 본 것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며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부부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싸움을 했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싸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때 한 스님이 지나다가 사람들이 웅성대며 모여있자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젊은 부부가 서로 할퀴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동네 사람들 몇몇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을 떼어놓고 나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아리 속의 사람은 모두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으나 틀림없이 내 눈으로 보았다면서 좀처럼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없이 스님은 이 부부를 항아리가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그럼 내가 당신들을 위해 항아리 속의 사람을 나오게 하겠음”하면서 큰돌로 그 항아리를 때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술이 다 쏟아져서 부엌바닥으로 스며들고 말았으나 사람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리석도다. 당신들은 술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것이요. 이처럼 허망한 자기의 그림자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다투는 일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헛된 망상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 부부는 스님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집비유경 하)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불교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

내가 밀교와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서원당에 나오면서 부터이다. 그때에는 무엇 때문에 음미반배춤을 염송하는 지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불공을 했다. 성장하면서 밀교에 대한 절실함이 없이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시니까 할 수없이 그냥

건성으로 다니다가 결혼하고서는 얼마 동안 다니지 않은 적도 있었다. 심지어 한때는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가만히 앉아서 염주 돌리는 것 보다는 웃고 떠들며 열광하는 교단 불공을 했다. 성장하면서 밀교에 대한 절실함이 없이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시니까 할 수없이 그냥

마니반배춤 이외에는 어디로 가든 마음을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공을 하다보니 믿음에도 지혜가 밝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왜 절에 다니는 것일까?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의 문이 열리며 참다운 불제자가 될 수 있을

까? 등등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생각으로는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데 실천이 안되는 것이 인간인가 보다.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는 우리가 매일 정성하고 매달 월초불공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루에 수십번도 더 변하는 이 변덕쟁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한번 더 내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서남교(실지사)

건강상식 1. 직업 식이요법과 가벼운 운동을



김옥희 (가원내과 원장, 내과 전문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서서히 증가하는 고혈압은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초기의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혈압을 방치할 경우 뇌

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고혈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높아지며 70대 연령군에서는 약 반수가 고혈압이라는 통계도 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여 말하는데 1백40/90mm Hg 이상은 고혈압으로 분류한다. 이완기 혈압이 1백을 넘거나 수축기 혈압이 1백60을 넘을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치료의 첫번째는 식이요법이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육류를 적게 먹고 아체나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하루 30~40분씩의 규칙적인

운동이다. 어쩌다 한번의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혈압치료를 심리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물리적인 요법을 일괄적 가장 시행후에도 계속 고혈압 증세가 보이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약물투여가 필요하다. 일부 환자들은 혈압약이 장기간 투여되므로 약물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나 이는 작은 부작용을 우려해 건강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고혈압 치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고혈압은 잘 조절하여 정상혈압을 유지한다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천수를 누릴 수 있다.

불교상식

생활속의 불교용어 ②

【宗教】는 불교에서 나온 말 神의 개념으로 종교를 한정하지 말아야 불교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쓰이던 말이 기독교 등에서 차용되어 오면서 종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천박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예를 든 (기도)라는 말도 그렇고 종교니 설교, 말세, 장로들의 말도 모두 불교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제는 도리어 저들의 전유물처럼 쓰이게 되었다. 우선 (종교)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은 수나라의 대연 법사가 불교를 4종류로 나누어 (四宗教)라 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종(宗)은 종지(宗旨) 곧 불교의 근본취지를 의미하며 교(教)는 경론(經論)에 의해 표현한 언교(言敎)의

의미인데 “宗은 무언(無言)의 敎이며 敎는 유언(有言)의 宗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영어의 religion의 번역어가 되면서 신에 의한 인간의 경의, 신앙의 총체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 즉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의 영향하에 있던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religion의 관념으로 종교라는 말을 한정지으면 불교의 호한한 세계는 영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속만이 전세계요 우주라고 우기는 것과 닮았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유럽의 철학자들이 불교를 처음 접하고는 불교가 종교나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알기알부하런

암림

(졸업) ◇본 중 분산 총지사에 재직중인 선도원 전수는 지난 2월10일 대원 불교대학 법당에서 봉행된 졸업식에서 동 대학 제29기생으로 졸업했다. (결혼)

◇부산 관음사 주교 수행원 전수의 6남 박기형 군의 결혼식이 지난 1월27일 토요일 오후 2시50분 부산 진영농협예식장에서 승단 스승 및 신도, 친지 등 3백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장례)

◇마산 문천사 주교 청신하 전수의 시어머님께서 지난 1월 3일 열반하였다. ◇밀양 밀행사 주교 밀공정 전수의 친정어머님께서 지난 1월 8일 열반하였다.

祝 就 任
제10대 통리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총지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망 퍼니쳐 대표 이영열 합장
불자 기업 차밍 퍼니쳐
◎ 생활 가구 주문·제작 ◎
• 장식장
• 옷 장
• 업소 및 가정용 썩크대
• 사무용 가구 일체
• 기타 가구
* 전국 출장 상담 가능
■ 본사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27-1
■ 전화 : (02)457-9853 휴대폰:011-301-0080 호출:015-934-0080

중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꾸미는 장!
귀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본 중보에 게재할 여러분의 귀한 글을 모집합니다. 중보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모두가 함께 꾸며야 합니다. 스승님, 종무원, 교도 모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응모내용 : 1)포교체험담, 설법.
2)스승님들이 사원 일선에서 교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3)독후감
4)신행담, 불공영험담.
5)미담사례.
6)종단발전 및 교화향상을 위한 제언.
7)알리고 싶은 내용
8)사업장 광고(사전 전화로 문의 바람)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5장 내외.
3. 제출기한 : 연중무휴
4. 문의 및 제출처 : 본 중 보법장원 총지중보사
[전화 (02)508-8933 전송(02)552-1082]
(135-082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중보사 담당자 앞)

총지도량 순례 ②

총지종의 모태(母胎) - 실지사(悉地寺)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한 유서깊은 밀법도량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한 유서 깊은 밀법도량 주태가가 밀 집한 미아동 산기슭에 원만무애의 상징인 구상(球相)을 머리에 이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밀법도량이 있다. 원정 종조께서 창종과 더불어 처음으로 교화의 발을 내디뎠던 성복 선교 부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총지종이 있게끔 산실의 역할을 한 실지사. 원정 종조님의 숨결이 배인 실지사의 옛모습을 더듬어 보고 그 활동을 살펴 본다.

실지는 성취를 뜻해 창종과 함께 본산 역할을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내려 동편 기슭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주택가 한가운데에 원만무애(圓滿無礙) 상징인 구상(球相)이 눈에 들어온다.

원이지만 만만찮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여기에서 병고를 해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곳이 바로 총지종의 산과 역할을 했던 성복 선교부의 후신인 실지사(悉地寺)이다. 실지(悉地)라는 말

불기 2516년(서기 1972년) 12월 24일 원정 종조께서 상봉동에 서울 선교부 개설과 함께 총지종의 창종

한 이상을 펼치시며 정진하시던 곳이 바로 이 실지사에서 엮인 것이다.

창종 초기에는 통리원의 모든 업무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역경과 경전 편찬 및 의계의 발골 정비도 실지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실지사는 명실상부한 총지종의 모태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실지사는 총기 11년 수유동으로 옮겨다가 총기 15년 미아동 현재의 위치로 다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실지사가 이 곳으로 옮겨 올 당시만 해도 제법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동안 주위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를 먹는다. 도심포교라는 차원에서 주태가의 대형 가옥을 매입하여 서원당으로 개조한 것인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 교화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든다.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기와 지붕의 한식 건물만이 사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총지종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원의 장엄문제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으로 올라가니 첫눈이 안방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늑하여 도심포교당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서원당으로 쓰기에는 약간 좁은 것이 흠이다. 일찍이 증축을 했어야 할 곳인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도량 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진지하다. 총지종의 창종 당시부터 함께 해온 보살님들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가 이 실지사일 것이다.

고리 바람으로 달려나가서 어투만 주신다고 한다. 시간이 나는대로 서예 지도도 하고 글씨를 써서 나누어 주기도 하시는데 음식과 바느질 솜씨 또한 뛰어나서 틈나는 대로 주위에 공덕을 베푸신다. 수행자로서 자기 관리도 철저하여 일흔의 연세에도 아직 내의를 입지 않으신다고 한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철저한 수행이 엮여있는 이 시대에 보기드문 참



◇ 작곡가인 신정희 전사.

도심속의 밀법도량으로 실천하는 보살들이 주축이되어

도 불구하고 실지사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늑한 정원이 우선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오래된 수목들이 여름에는 그늘을 지어주고 겨울에는 자칫 삭막해 질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해준다. 원정 종조께서 늘 말씀하시던 도심내의 도량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지사에 가면 누구나 친절하게 대해 주지만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중의 한 분이 (정화 암마)이다. 실지사 주교인 심인행 전수님의 출가(出家)한 큰 따님으로 마침 집이 가까이 있어 보살님들의 공양준비는 물론 경내 청소며 스승님 수발도 들고 자질구레한 절살림을 도맡아 하신다. 특히 꽃꽂이솜씨가 좋아 불단 장엄을 혼자 도맡아 한다고 한다. 미소를 머금고 항상 환희한 마음으로 일하는 보살님을 보면 관세음보살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일출 공양처를 지나 이층 서원당

그래서인지 어느 보살님을 불렀고 얘기를 나눠보아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천하시는 보살님들이라는 느낌이 든다. 스승님의 설법 또한 보통이 아니다.

올해로 일흔이 되시는 심인행(心印行) 전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밀교와 인연을 맺어 원정님을 가까이에서 도시며 공부하신 공덕이 설법으로 나타난다. 인자하고 대범하심은 물론 박식하고 견해가 바르시므로 설법도 언제나 정법을 강조하고 보살들의 지혜 개발에 중점을 두므로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이끄신다고 한다. 많이 배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최고라고 설법하시는 심인행 전수님은 정확하고 책임감이 있기라도 유명하시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보살님이 급하게 도움을 청하면 밤 한시든 두시든 상관없이 출저

다온 수행자라 할 만하다. 재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 총지종의 자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실지사는 교도들이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스승님의 지도로 교도들 사이의 화목이 그 어느 사원보다도 월등하다. 경조사에는 모두가 자기 일 같이 참여하여 기쁨을 배가하고 슬픔은 나누어 갖는다. 뿐만 아니라 소문없이 보시행도 많이 하고 있다. 교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불우 가정의 자녀들을 돕기도 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며 동네의 극빈자들에게 물질적 보수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꽃마을 등에서 가지고 온 세탁비누등을 팔아 이웃을 돕기도 하고 각종 봉사단체에 성금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들을 오랜 기간 소문 없이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흐뭇하다.

이러한 바깥으로의 활동 뿐 아니라 심성 정화를 위한 활동도 그 어느 사원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서예교실이 그 중의 하나인데 매주 금요일에 일출 공양처에 모여 붓

심인행 대전수



심인행 대전수(71세)는 속명이 박광자(朴光子)이며 경주 동방동 유서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사대부 집안의 규수로서 갖추어야 할 법도와 예의 범절을 익히고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신식 교육을 받았다.

이후 가정을 꾸미고 다복한 생활을 누리던 중 뜻하지아니한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친정어머니로 인하여 밀교에 인연을 맺게 되고 음미반메혹의 지승 공덕으로 병고해탈을 하므로서 밀법의 오묘함을 깨닫고 49세 때에는 총지종의 전수로서 교화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창종 초기 실지사에서 원정 종조님을 시봉하면서 총지종의 기틀을 다지는데 이조를 했으며 사회부장, 원의회 의원, 종의회 의원과 재단 이사등을 역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말보다는 먼저 몸으로 실천을 보여주고 매사에 정확하며 책임감이 투철하여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다고 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총지종의 역사와 함께 길이 기억되어야 할 훌륭한 스승중의 한분이다.

글씨를 지도 받는데 벌써 칠년째가 되었다고 한다. 글씨를 배우러 왔다가 제도된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서예교실도 더 개방하여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게 할 것이라 한다.

실지사는 그야말로 도심포교당으로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금강도량인데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도량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교화에 지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자성학교의 경우에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바쁜 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매 주어진 불자들을 지도하는 정재우 각자님께 의하면 여건만 어느정도 갖추어 지면 자성학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장소를 제공해주시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고 한다. 실지사의 증축이나 개축은 상당히 시급한 것 같다. 실지사의 신정회 회장인 실천제(實踐齋)보살에

의하면 "요즈음 사람들은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초심자들을 상대로 교화를 할 때는 사원의 장엄도 필요하며 건교적 특색이 강조된 큰 사원의 건립이 필요한데 우리 실지사가 말로 하루 빨리 개축이 되어 강북의 중심도량으로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정님의 각별한 정이 서린 실지사에 그동안 종단에서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원력을 세우고 더욱 정진하면 새로운 도량을 가지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지사의 모든 교도들이 화합 단결하면서 유비무환 실천을 생활화하며 정진에 열심인 이러한 모습이 널리 알려지고 다른 사원의 본보기가 되어 교세가 더욱 발전한다면 (悉地寺)라 이름붙인 원정 종조님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



◇ 회원들의 작품앞에선 실천제 신정회 회장.

화목과 보시행은 실지사의 자랑 도량확장이 시급한 과제

하는 묘과(妙果)를 뜻한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는 정각(正覺)을 완성한 자리를 무상실지(無上悉地)라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실지라는 말은 이렇게 숭고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인지 실지사는 비록 작은 사

로 개칭하게 되었는데 원정 종조께서 우리의 진언 공덕이 속히 성취되어 밀법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염원하시는 뜻에서 특별히 실지사로 명명하신 것이었다. 원정 종조께서 우리 총지종의 오늘이 있도록 용

祝 就 任

총지종의 무궁한 발전과 범공 통리원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보성 건축사 사무소 소장 박수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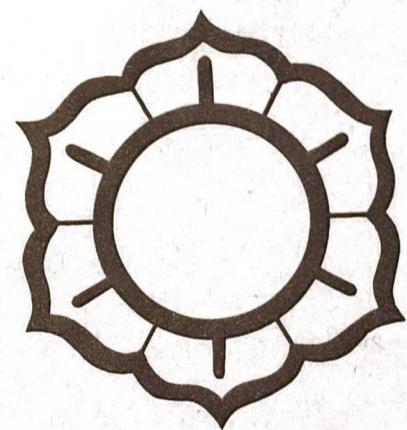


보성 건축사 사무소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23-3
전화 : (0351)875-9710~2 FAX : (0351)875-9713

축 임

제10대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自歸於僧，當願衆生，統理衆生，一切無礙

불교총지종 신정회

